



고등학생들의 성의식, 생식건강지식, 성 관련 경험에 대한 상관관계연구

조 미 옥¹⁾ · 김 증 임²⁾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의 성의식은 인격형성 특히 자아기능 완성의 핵이 된다(Kim, 1989).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성에 대한 관심은 성 인기와 같은 성의식으로 발달되어지는데, 이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청소년들이 쉽게 접하는 인터넷, TV등의 매체와 성인용 잡지 등이다. 성과 관련된 내용은 절려짐 없이 청소년들에게 개방되어 청소년들의 성의식을 크게 변하게 하였고, 더불어 청소년의 성 관련 경험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성 관련 경험이 높아지는 배경으로는 낮은 성의식 및 생식건강에 관한 지식을 들 수 있다.

성 관련 경험이란 단순히 성경험 유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청소년들의 성 상담 내용을 보면 성경험과 임신뿐만 아니라 성충동, 자위행위, 이성문제, 피임 등을 포함하고 있다(Adolescence World, 2000). 이는 청소년의 성 관련 경험의 폭이 그 만큼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를 보면 성 경험 유무와 임신경험 유무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Kim, 1997; Lee, 1994; Park, 2003). 그러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단지 성경험 유무의 결과로 부정적인 이미지만 전달될 뿐 구체적으로 청소년이 갖는 관심이 무엇이며 그에 대한 실태가 어떠한지, 성 관련 경험 후 결과로서 심리 및 행위변화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고 본다. 즉 넓

은 의미의 성 관련 경험과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성지식은 성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을 말하며(Sung, 1984), 생식건강지식은 생식건강에 관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지식과 생식건강지식은 동일한 의미는 아니다. 여기에서 생식건강이란 생식계통, 생식기능, 생식과정과 관련하여 단지 질병이나 기형이 없는 상태일 뿐 아니라 완전한 육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상태를 의미한다(Lee, Sunwoo, & Ku, 1999).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생식건강지식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는 단순하게 남녀의 차이, 생식기 계통의 해부 및 생리적인 지식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의 성지식을 중심으로 조사했을 뿐 생식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지를 측정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Han, 1997, Yang, 1992).

본 연구에 앞서 학생들의 생식건강지식을 얻게 되는 정보원을 알아보기 위해 중고생 8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보고서(간호학과 4학년 조사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성교육을 받기 전에 이미 인터넷 동영상 등을 통해 다 알고 있다는 학생들이 절반이상이었다. 또한 이는 성 관련 경험자일수록 학교의 성교육 수업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매체를 통해 성관련 정보를 얻고 있었다.

또한 성의식 정도가 영향을 주는 문제로는 성경험, 성병, 원치 않는 임신, 인공유산의 증가와 피임법 비이용이 있다(WHO, 1986). 이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요이슈로 성관련 경험의 내용에 포함된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임신에 이

주요어 : 고등학생, 성의식, 생식건강지식, 성 관련 경험

1)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산부인과 간호사

2)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교신저자 : jeungim@sch.ac.kr)

투고일: 2004년 1월 15일 심사의뢰일: 2004년 1월 17일 심사완료일: 2004년 3월 5일

르기 전 단계에서 음란물 접촉이나 성충동, 신체적 접촉 요구의 경험들이 있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성 관련 경험의 범위를 넓혀서, 음란물 접촉, 성충동, 신체적 접촉 요구, 성관계, 피임법 사용 및 임신 경험을 포함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상에서 살펴볼 때 성의식은 성에 대한 관심 및 생식건강지식 추구, 그리고 실제로 성 관련 경험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성의식 수준과, 생식건강지식, 그리고 성 관련 경험을 동시에 조사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의식 수준과 생식건강지식, 성 관련 경험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청소년의 성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성의식, 생식건강지식이 고등학생들의 성 관련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아래와 같다.

- 대상자들의 성의식, 생식건강지식, 성 관련 경험 수준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성의식, 생식건강지식, 성 관련 경험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들의 성의식, 생식건강지식, 성 관련 경험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 대상자 중 성 관련 경험자의 경험 후 심리 및 행위변화를 파악한다.

용어 정의

• 성의식

성의식이란 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및 태도를 말한다 (Green & Tone, 2000).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자가 개발한 체크리스트로 평가하여 얻은 점수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성의식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생식건강지식

생식건강이란 생식계통·생식기능·생식과정과 관련하여 단순한 질병이나 선천적인 기형이 없는 상태일 뿐 아니라, 완전한 육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 상태(Lee, Sunwoo & Ku, 1999)를

말하며, 생식건강지식은 생식건강과 관련된 지식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자가 개발한 체크리스트로 평가하여 얻은 점수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생식건강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성 관련 경험

성 관련 경험은 음란물 접촉에서부터 임신에 이르기까지의 경험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자가 만든 체크리스트로서 음란물접촉, 성충동, 신체접촉요구, 성관계, 피임, 임신 등의 6개 항목으로 평가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성 관련 경험 수가 많음을 의미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청소년들의 성의식, 생식건강지식, 성 관련 경험을 파악하고 이를 변수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 대상

연구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먼저 학교 선정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본 연구자의 직접 학교방문과 지인을 통한 섭외가 있었다. 그 결과 본 연구자가 직접 방문한 충남 지역 2개 고등학교와 지인을 통해 접촉된 경기지역 2개 고등학교의 총 4개의 인문계 고등학교가 선정되었다. 대상자는 이 4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서 편의추출법으로 모집한 300명이다. 조사방법은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이에 참여를 허락한 학생들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기입내용이 불충분한 24부의 자료를 제외한 276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도구

조사항목은 일반적 특성, 성의식, 생식건강지식, 성 관련 경험으로, 일반적 특성 10문항, 성의식 10문항, 생식건강지식 20문항, 성 관련 경험 6문항의 총 46문항으로 이루어졌다.

• 성의식

성의식 수준의 측정도구는 본 연구자가 개발한 것으로, 성의식에 관한 개방형 질문을 통해 얻은 결과, 관련 서적, 인터넷, 관련 논문을 토대로 만든 문항 중 간호학과 교수 1인과 산부인과 전문의 1인에게 문항의 타당성을 자문하였으며 성

의식의 조사문항으로서 꼭 필요하다고 평가한 10문항이 채택되었다. 응답결과는 '매우 그렇다' 4점, '그렇다' 3점, '아니다' 2점, '전혀 아니다' 1점의 4점 척도로 평가하였고, 합계점수가 높을수록 성의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64$ 였다.

• 생식건강지식

생식건강지식의 측정도구는 본 연구자가 개발한 것으로,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교육 자료집과 관련 서적, 관련 논문에서 생식건강지식을 묻는 내용으로 간호학과 교수 1인과 산부인과 전문의 1인에게 문항의 타당성을 의뢰하여, 생식건강지식으로 꼭 필요하다고 평가한 20문항이 채택되었다. 응답결과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으로 평가하여 최고 20점으로 합계점수가 높을수록 생식건강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1$ 이었다.

• 성 관련 경험

성 관련 경험은 음란물접촉, 성충동, 신체적 접촉, 성관계, 피임, 임신 등의 경험 유무를 묻는 체크리스트로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경험이 있는 경우는 1점, 경험이 없는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하였고, 6항목 어느 항목에 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0점, 6개 항목 모두 경험이 있는 경우는 6점으로 평가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성 관련 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자료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2003년 8월 1일부터 9월 10일 동안 이루어졌다. 충남지역과 경기지역의 4개 인문계 고등학교로, 충남 지역 2개교는 학년 주임에게 승인을 얻어 연구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하였고, 경기지역 2개교는 학년 주임에게 승인을 얻은 후 훈련받은 연구보조원이 자료수집을 하였다. 연구보조원에게는 연구의 취지와 질문지 회수방법, 비밀유지나 자료수집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을 설명하였다. 질문지 응답시간은 1인당 10-15분 소요되었고, 모든 참여자에게는 설문 후 간단한 선물을 제공하였다.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들은 SPSS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각각의 응답은 빈도와 백분율로 파악하였고, 성의식, 생식건강지식, 성 관련 경험의 수준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성별에 따른 성의식, 생식건강지식, 성 관련 경험의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성의식, 생

식건강지식, 성 관련 경험자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만 16.5세이었고, 남학생이 154명(55.8%), 여학생이 122명(44.2%)이었다. 현재 흡연 학생은 7.6%, 음주 학생 62.0%로 음주학생이 많았다. 이들이 성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은 인터넷 47.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친구 38%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 이성친구가 있는 학생은 47.8%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76)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Frequency	Percentage
Sex	male	154	55.8
	female	122	44.2
Age	15	24	8.7
	16	105	38.1
	17	119	43.1
Smoking	18	28	10.1
	smoke	21	7.6
	don't smoke	255	92.4
Drinking	drink	171	62.0
	don't drink	105	38.0
	internet	130	47.1
Source of Information	friend	105	38.0
	teacher	24	8.7
	TV	12	4.3
	article	4	1.5
	brothers	1	0.4
Heterosexual friend	have	132	47.8
	not have	144	52.2

대상자의 성의식, 생식건강지식, 성 관련 경험

대상자의 성의식 수준은 40점 만점에 평균 28.9점(± 3.69)이었고, 생식건강지식 수준은 20점 만점에 평균 10.5점(± 3.79)

<Table 2> Differences in Sexual Consciousness, Reproductive Health Knowledge, Sexual Experience

	Sex	Mean(SD)	Subtotal	t	p
Sexual Consciousness	male	28.2(3.72)	28.9(3.69)	-3.22	<.001
	female	29.7(3.52)			
Reproductive Health Status	male	10.3(3.80)	10.5(3.79)	-0.95	.34
	female	10.7(3.79)			
Sexual Experience	male	2.1(0.95)	1.7(1.10)	8.17	<.001
	female	1.1(1.03)			

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 관련 경험은 각 문항에 대한 유경험 수로서 평균 1.7개(± 1.10)로 나타났다. 한편,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성의식($t=-3.22$, $p<.001$)과 성 관련 경험($t=8.17$, $p<.001$)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생식건강지식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Table 2>.

성의식, 생식건강지식, 성 관련 경험의 상관성

대상자의 성의식, 생식건강지식, 성 관련 경험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에서 성의식정도가 높을수록 생식건강지식정도가 낮았고($r=-.13$, $p=.04$), 성관련경험정도가 낮았다($r=-.17$, $p=0.01$). 한편 성관련경험과 생식건강지식의 관계는 유의한 정상관계를 보여 성 관련 경험이 높을수록 생식건강지식도 높았다($r=0.21$, $p<.001$).

성 관련 경험 후의 심리변화와 행위변화

성 관련 경험의 심리변화와 행위변화는 음란물 접촉, 성충동, 신체적 접촉 요구에 대해서만 경험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성관계, 피임법 사용, 임신 등은 유·무의 응답으로만 나타

<Table 3> Relations of Sexual consciousness, reproductive health knowledge, sexual experience

	Sexual Consciousness	Reproductive Health Status
Reproductive Health Status	-.13 (.04)*	
Sexual Experience	-.17 (.01)**	.21 (.00)***

* $p<.05$, ** $p<.01$, *** $p<.001$

<Table 4> Psycho-behavioral Change after Sexual Experience

Sexual Experience	Psychobehavioral Change	frequency	Percentage
Pornographic materials(n=226)	can't concentrate	73	32.4
	feel sexual impulse frequently	34	15.1
	guilt or regret feeling	66	29.3
	feel good	53	23.2
Sexual Impulse(n=132)	endure	102	78.3
	Self touching genitalia	16	12.4
	look porno material	5	3.1
	sexual intercourse	2	0.8
	others	7	5.4
Physical Touch(n=70)	kiss	26	37.2
	physical sexual intercourse	14	20.0
	light kissing	14	20.0
	holding hands	12	17.1
	embracing	4	5.7

나 제외하였다. 음란물 접촉후의 심리변화는 정신 집중이 안되거나 성충동을 더 자주 느낀다가 107명(47.5%), 죄책감·후회가 66명(29.3%)으로 나타났고, 기분 좋음이 53명(23.2%)으로 나타났다. 성충동 후의 행위변화는 성충동 시 '참았다'가 102명(78.3%)으로 가장 많았고, '자위행위를 했'은 16명(12.4%), '음란물을 봄'은 5명(3.1%), '성관계를 가짐'은 2명(0.8%)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접촉 요구 후의 행위변화는 '키스'가 26명(37.2%)으로 가장 많았으며, '육체적 성관계'와 '가벼운 뾰뽀'는 각각 14명(20%), '손잡기와 어깨동무'는 12명(17.1%), '껴안기'는 4명(5.7%)이었다<Table 4>.

논의

본 연구는 경기, 충청지역 소재 4개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의식, 생식건강지식, 성 관련 경험을 파악하여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고등학생들이 성지식을 얻는 정보원은 인터넷이 47.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친구 38%로 나타났다. 이는 성지식 출처를 조사한 10년 전 연구의 결과 '성교육 및 선생님' 46%(Lee, 1994)에 비하면, 요즘 학교에서 성교육은 강화되었으나 상당수의 학생들이 인터넷이라는 매체에 노출되었음을 알 수 있고, 성교육보다는 인터넷이 청소년들의 성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청소년들의 이성교제는 2명 중 1명꼴로 이성교제 경험을 나타냈는데(Kim, 1997; Park, 2003) 본 연구에서도 이성교제 경험은 47.5%로 거의 절반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성교제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이성교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확대되어지고 있고, 실제로 이성과의 성관련 경험도 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ang(2000) 연구에서는 실제 이성교제를 하는 청소년 44.9% 중 상당수가 이성 친구와 포옹이나 키스(87.4%) 및 성관계(68.8%)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건전한 이성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의식과 여건의 조성이 함께 준비되어져야 하겠다.

본 연구 결과 고등학생들의 성의식 점수는 40점 만점에 28.9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대다수가 바람직한 성의식을 보이고 있다. 고등학생들의 생식건강지식은 20점 만점에 10.5점으로 낮게 나타나 청소년들의 생식건강지식 수준에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생식건강지식 부족으로 인해 올 수 있는 질병 및 문제점을 교육하여 지식습득의 필요성을 강조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고등학생들의 성 관련 경험의 수준은 6가지

중 1.7개 갖은 것으로 성 관련 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부분은 음란물 접촉과 성충동 경험이었는데, 본 연구에서 성에 대한 지식의 출처가 인터넷 47.1%라는 결과를 비추어 볼 때 학생들은 음란물을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접촉하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인터넷은 성교육을 위해 적합한 정보출처가 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지식은 매우 부정확하고 부족하며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성별에 따른 성의식, 생식건강지식, 성 관련 경험의 차이를 파악한 결과 성의식(과 성 관련 경험에서 남녀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의식에서 문항별로 남녀 차이를 보면 ‘자신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 만족합니까’의 물음에 대해서 228명이 ‘그렇다’라고 대답하여 다른 문항에도 그랬듯이(Kim & Lee, 2000) 절대다수가 자신의 성을 만족스럽게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반면, 자아 성 만족도를 성별로 보면 남학생(149명)이 여학생(79명)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마 우리 사회의 남아선호사상이 잔존하고 있고 또한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적 환경이 남성위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성을 아름답다고 생각합니까’의 물음에 대해서는 196명이 ‘그렇다’라고 대답하여 부정적인 느낌이나, 성을 유희나 폐락으로 본 연구(Ku, 2001)와는 달리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에서도 남학생이 더 긍정적으로 나타나 남녀 차별적인 성의식이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성지식 차이에 관한 기존 연구를 보면 Yang(1992)의 연구에서는 최대 점수 100점에서 남학생이 69.1점, 여학생이 79.1점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고, Kim & Lee(2000) 연구에서는 성지식 수준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나 각각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생식건강지식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성 관련 경험의 차이를 살펴보면 음란물 접촉과 성충동 경험에서만이 남녀 차이가 나타났는데, 특히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마도 성차별적인 문화의 영향이나 사춘기 시기라는 특성상 남학생의 성충동이 이 시기에 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는 Kang(2000)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포르노 경험이 많은 학생일수록 포르노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포르노 경험이나 태도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이러한 결과는 왜곡된 성의식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고, 남녀간에 성의식의 차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음란물, 대중매체 규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

성 관련 경험 후의 심리변화와 행위변화 및 행위를 파악함에 있어서 성관계, 피임법 사용, 임신 등은 유·무의 응답으로만 나타나 제외하였고, 음란물 접촉, 성충동, 신체적 접촉 요구에 대해서만 경험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음란물 접촉을 경험한 후 심리변화는 ‘기분이 좋다’는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정신집중이 안되거나, 죄책감 및 후회’ 등의 부정적인 심리변화가 더 높았고, 성충동 후 행위변화로는 음악 감상, 운동, 책 읽기, TV보기 등 다른 일에 전념하면서 ‘참았다’가 78.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위행위, 음란물을 봄, 성관계를 가짐의 순으로 나타났다. Lim, Yang & Lee(2001)의 연구의 결과에서 학생들의 성충동 해소 방법은 ‘그냥 참는다’가 33.1%로서 운동이나 취미활동 13.8%에 비해 더 높은 결과를 보여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욕구를 건전한 방향으로 풀어나가는 것을 알 수 있으나, 무작정 참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 자기 조절과 자기 관리를 할 수 있고, 또한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 의식을 지니도록 성충동 후 대처방안으로 적절한 성교육이 필요하겠다.

대상자의 성의식, 생식건강지식, 성 관련 경험의 관련성을 파악한 결과로는 성 관련 경험과 생식건강지식과의 관계에서 순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성 관련 경험이 있는 학생일수록 생식건강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관련경험이 있는 학생이 더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 정보를 더 갖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성의식이 높을수록 성 관련 경험은 낮게 나타나 성의식을 높이는 것이 성 관련 경험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추후 성교육 및 중재 프로그램에서는 생식건강지식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성의식을 높이는데 주력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청소년기의 올바른 성의 형태가 전 생애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청소년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청소년기는 성 역할에 대한 사회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성 지식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시기이므로 올바른 성 지식의 습득과 성의식 형성이 중요하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성의식, 생식건강지식, 성 관련 경험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성의식과 성 관련 경험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여학생의 성의식수준이 남학생보다 높았고 성관련경험 또한 남학생보다 적었다. 한편 성의식, 생식건강지식 및 성관련경험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에서는 대상자의 성의식이 높을수록 생식건강지식과 성관련경험이 낮은 역 상관성을 나타내었고, 성 관련 경험이 높을수록 생식건강지식이

높은 정상관성을 나타내었다.

이상에서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성의식과 생식건강지식사이에 약한 상관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관련경험이 많은 학생들에서 생식건강지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지역사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의식 수준 향상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시 성별차이를 고려하여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 성관련 경험이 많은 학생들에게 맞는 생식건강지식이 제공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을 제언한다.

References

- Adolescence World (2000). Research on adolescence based on cyber counseling.
- Chang, S. B., Kim, S. Y. J., Han, I. Y., Park, Y. J., Kang, H. C., & Lee, S. K. (2001). Sexual behavior and related factors of coitus of teenage girls in Korea. *J Kore Aca Nurs*, 31(5), 921-931.
- Chang, S. B., Yoo, M. S., & Lee, S. K. (2001). Self-assertiveness and sexual experiences of teenage girls in Korea, *Korean J Women Health Nurs*, 7(3), 305-316.
- Green, J. tones, K. (2000). Sex and the world. Sexual foundation for practice. edited by wilson, H & McAndrew, Bailliere Tindall.
- Hanguk Sungpokryok Sangdamso (2000). *Sexual violence and strategy through adolescent sex culture*. Hanguk sungpokryok Sangdamso Unpublished manuscript
- Han, Y. J. (1997). Effect of sex education on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 in junior student. Mater thesis, Junnam University.
- Hong, S. B. (1998). History of artificial abortion. *J of Kor Gynecology*, 31(11), 1503-1513.
- Jungang Newspaper. Oct 23, 2003. [Http://www.joongang.co.kr](http://www.joongang.co.kr)
- Kang, H. J. (2000). Research on sexual consciousness in Korean Adolescence. Master thesis, Koryo University.
- Kim, G. S. (1989). Sexual consciousness and sexual education in adolescence. *Korea Nurse*, 24-27.
- Kim, S. W., & Lee, M. S. (2000). *Materials for sexual consciousness and sex education in junior students*. Chyngsonyun Boho Committee. Unpublished manuscript.
- Kim, H. J., & Lee, G. O. (2000). Research of sexual knowledge between girl and boy students. *Chungsionyhak Yeongu*, 161-181.
- Kim, T. G. (1997). *Relation of sexual consciousness, sexual behavior and misbehavior*. Master thesis, Department of Counsel Education, Yeonsei University
- Kim, Y. J., & Lee, H. K. (1995). The effect of sex education for high school girls' knowledge and attitude related to sex. *Korean J Women Health Nurs*, 1(1), 35-53.
- Ku, S. H. (2001). *Research on changes of sexual consciousness between adolescence and adult*. Korea Publication Ethical Committee.
- Lee, C., Sunwoo, T. W., Ku, B. S. (1999). A study of sexuality in Korean adolescence. *Korean J Obstet Gynecol*, 42(2), 307-316.
- Lee, M. H. (1994). *Survey on sexual consciousness and sex education in urban Adolescence*. Master thesis, Koryo University.
- Lee, M. S., Kim, E. Y., Kim, D. K., Lee, M. Y., Lim, E. S., Lee, S. K., Lee, J. Y., & Lee Y. K. (2002). Effects of sexuality education program in high school adolescent. *J Korean Soc Maternal and Child Health*, 6(1), 7-22.
- Lee, E. J. (1999). Needs for sex knowledge in adolescents. *Korean J of Childhealth Nurs*, 5(2), 211-234.
- Lee, K. H. (1999). *Women's health and sex*. Proceeding book. 6th Congress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15-24.
- Lee, S. K. (2001). Relationships between the level of sexual contacts and self-esteem, self-assertiveness of teenage girls who have or had boyfriends, *Korean J Women Health Nurs* 7(2), 212-228.
- Lim, M. R., Yang, S. O., & Lee, K. O. (2001). A Research Study on the Sexual Awareness of Teenagers, Their Parents and Teachers in an Urban Area. *J Korean Comm Nurs*, 12(3), 755-772.
- Park, J. C. (2003). *Survey about sexual consciousness and sexual practice in high school student*. Master thesis, College of Education, Busan National University
- Park, S. H. (1997). Artificial abortion and women's reproductive health. *J. Korean Public Health Assoc*, 23(1), 66-78.
- Sung, Y. J. (1984). *Research on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experience*. Master thesis, Jungang University.
- WHO (1986). Reproductive Health in Adolescent, MCH division of family health position paper, WHO, Geneva, Switzerland.
- Yang, S. S. (1992). *Survey on sex education practice and strategy*, Master thesis, Inha University.

Relationship among Sexual Consciousness, Reproductive Health Knowledge and Sexual Experience in High School Students

Cho, Mi Ock¹⁾ · Kim, Jeung Im²⁾

1) Soonchunhyang University Cheonan Hospital, RN

2) Soonchunhyang University, School of Nursing, Assistant Professor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look at the relationship among sexual consciousness, reproductive health knowledge and sexual experience. **Method:** the subjects were 276 high school students in 4 high schools in Gyonggi Province and Chungnam Province. The data was collected from August 1 to September 10, 2003. **Result:** The average age of the subjects is 16.5 years old, composed of male students, 154 persons(55.8%), and female students, 122 persons(44.2%). The mean scores of sexual consciousness, reproductive health knowledge and the mean level of sexual experience are 28.9, 10.5, and 1.7 respectively.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exual consciousness and sexual experience by sex ($t=-3.22$, $p<.001$; $t=8.17$, $p<.001$), the male students have more sexual experience than the female students, while the girls have a higher sexual consciousness than boys. Sexual consciousness has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reproductive health knowledge and sexual experiences($r=-0.13$, $p=0.04$; $r=-0.17$, $p=0.01$). Sexual experience has a positive relationship to reproductive health knowledge($r=0.21$, $p<.001$). **Conclusion:** We can conclude that sexual consciousness and reproductive health knowledge are weakly related to sexual experience. In addition we suggest developing an educational program to enhance sexual consciousness for high school students considering sexual differences.

Key words : Sexual Consciousness, Sexual Knowledge, Sexual Experience, High School Students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Kim, Jeung-Im

Soonchunhyang University, School of Nursing

657-58, Hannam-dong, Yongsan-Ku, Seoul 140-887, Korea

Tel: +82-2-709-9495 Fax: +82-2-709-9495 E-mail: jeungim@sch.ac.kr